

# 계엄 후 5개월...작음의 위대함 넘치게 경험한 날

## 작은 일기

황정은 지음



세면대 밸브에서 물이 새는 걸 발견한 후 집수리 기술자에게 연락했다. 한달 뒤 마감해야 할 단편소설을 이어 썼다. 이디스 워튼의 '이선 프롬'을 읽으며 주인공의 고독과 고립에 마음 아파했다. 번역서 두 권과 글을 주문했다. 오후 열시 이십삼분. 계엄이 터졌다. '백의 그림자', '디디의 우산'의 소설가 황정은이 기록한 12월 3일 화요일의 일기다.



황정은 소설가의 에세이 '작은 일기'는 계엄 선포일인 12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를 기록한 책이다.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금남로 집회 모습. <광주일보 자료 사진>

인터뷰집, 백서, 르포 등 다양한 형식으로 불법 계엄부터 윤석열 파면까지를 기록한 책이 출간되는 가운데 황정은이 12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의 일기를 묶은 책 '작은 일기'를 펴냈다.

계엄 선포 당일 동거인과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간 후 여러 날 광장에 머물렀던 그는 "작아서 자주 무력했지만 다른 작음을 곁에서 작음의 위대함을 넘치게 경험한 날"이었기에 "사소하고 부족한 기록이지만 훗날 이념들을 돌아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책을 출간했다.

계엄령 선포 후 사회 상식의 수준이 무너져가는 걸 지켜보는 일은 고통이었지만 그는 매일의 삶을 일기로 기록한다. 저자는 집회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보태고, 불안함과 걱정 속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일기를 쓰고 소설을 써내려갔다. 5개월의 일기를 읽다보면 새삼스레 우리가 엄청난 시간을 함께 견뎌왔음을 느끼게 된다. 불안과 긴장으로 무너져 내린 일상, 현재의 탄핵 선고를 앞둔 긴장감, 탄핵 이후에도 체포되지 않는 권력자와 이를 지지하거나 방조하는 세력들에 대한 분노 등은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의 마음이었다.

저자는 "광장에서 아무도 국가 폭력으로 다치지 않아 기쁘다는 말을 듣고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적었다.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상황이 이렇게 많은 이들

의 마음에 뻗은 가능성으로 존재했던 그 시간 자체가, 그런 시간이 있는 현실 그 자체가 두렵고 아프다"는 말이 무겁게 다가온다. 더불어 "내가 너무나 중요한 그 무엇이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목격하는 일, 사람의 무엇인가를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헤아려 보게 된다.

책에서 인상적인 대목은 서로를 이해하며 연대하는 사람들 이야기다. 집회 초기와 달리 광장에 앉은 사람들은 점차 누군가가 느낄 부당과 불평, 불쾌를 인정하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게 시작했다. 남태령에서 밤을 지새운 사람들과 그들에게 난방비스와 음식을 보낸 마음들이 연결돼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처럼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세상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저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남의 고통을 돌아보고, 서로 돌볼 줄 아는 마음이 이처럼 강렬한 정치적 국면에 광장으로 나왔다가 다른 광장으로 번 제값"고 이 광경을 모두 목격하고 기록한 저자는 말한다. "놀라운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그리고

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놀랐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저자는 독서를 하며 마음을 추스린다. 내용이며 만들 새며 모든 게 너무 아름다워서 심장이 뛰고 아껴 읽고 싶은 다이애나 베리스퍼드 크로거의 '세계술', 읽다 눈물을 터트린 배리 로페즈의 '호라이즌', 아야드 악타르의 '휴랜드 엘레지' 등이 버거운 일상에서 숨통을 틔워 준 리스트다.

"노동자, 농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온갖 시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부침을 겪고 있던 불법 계엄이라는 국가 폭력에 관동당한 경험으로, 그 고통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감을 잃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저자는 책의 마지막에 "이 국면을 함께 지나온 사람들, 여러분과 동시대를 살아 다행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다른 날 다른 때 우리가 또 서로를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라고 썼다. <창비·1만 4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지금부터 조선 젠더사(하여주 지음)=흔히 보수적인 여성들을 '유교걸'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진짜 유교걸인 조선 여성들은 정말 보수적이고 순종적이었을까? 이 물음에서 시작한 책은 조선 시대 유교 젠더 규범의 형성 과정과 그에 맞선 여성들의 대응을 살펴본다. 재혼 금지법, 여성 교훈서, 의서 등 유교적 질서 속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타협하고 균열을 냈는지 날카롭게 짚어낸다. '유교 걸'이라는 신화를 되짚는 젠더 사 입문서. <푸른역사·1만5000원>



▲살은 여전히 빛난다(로랑스 드빌레르 지음, 이주영 옮김)=무기력과 우울, 번아웃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전하는 '나의 행복' 찾는 법. 철학자 드빌레르는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25가지 이야기를 따라가다보면 놓치고 있던 '세상의 찬란함'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위즈덤하우스·1만7800원>

▲세이프 시티(손보미 지음)=기억을 선택적으로 지우는 '기억 교정술'이 국가 권력과 결합한 근미래, 기억은 국가 권력의 통제 수단이 된다. '기억이 아니라면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여성 경찰의 윤리적 고뇌와 기술 권력의 충돌을 섬세하게 그려낸 사회파 미스터리로, 기술 만능주의 시대, 젠더화된 폭력

등 동시대 사회문제를 날카롭게 포착한다. <창비·1만7000원>

▲우리들의 드라마(노희찬재단 구술생 에시팀 지음)=고깃집 장사를 20년하고 지금은 또 20년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최구름, 신촌배달부터 대리운전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 우상택, 미화반장이자 두고 온 아들 걱정 뿐인 탈북여성 이경희.. 평범한 이웃들이 평생 가슴 속에만 묻어뒀던 인생 이야기가 펼쳐진다. 아홉편의 생애사는 우리 모두 각자의 드라마를 간직한 주인공임을 깨닫게 한다. 너무 가까워 오히려 들여다보지 못했던 삶을 조명하는 구술 생애사 모음집. <후마니타스·2만원>

## 어린이·청소년 책



▲장수풍뎅이 호텔(마누 몬토야 지음, 김윤정 옮김)=벌레 손님들이 모여드는 장수풍뎅이 호텔. 하지만 까다로운 규칙 탓에 꿀을 먹고 싶은 꿀벌과 노래하고 싶은 매미 등 손님들은 불평을 한다. 화가 난 호텔 주인 장수풍뎅이가 써는 획 나가버리고, 호텔은 엉망진창이 된다. 결국 손님들과 장수풍뎅이씨는 서로 의견을 나누며 호텔을 새롭게 바꿔 나가기로 한다. 서로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 <머스트비·1만6800원>

▲장수풍뎅이 호텔(마누 몬토야 지음, 김윤정 옮김)=벌레 손님들이 모여드는 장수풍뎅이 호텔. 하지만 까다로운 규칙 탓에 꿀을 먹고 싶은 꿀벌과 노래하고 싶은 매미 등 손님들은 불평을 한다. 화가 난 호텔 주인 장수풍뎅이가 써는 획 나가버리고, 호텔은 엉망진창이 된다. 결국 손님들과 장수풍뎅이씨는 서로 의견을 나누며 호텔을 새롭게 바꿔 나가기로 한다. 서로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 <머스트비·1만6800원>

▲비로와 호랑할배(조은주 지음, 장선환 그림)=어느 날, 할아버지가 진짜 호랑이로 변했다. 손자 비로는 백두산으로 떠나겠다는 할아버지를 따라 아슬아슬한 여정을 시작한다. 밀렵꾼과 가족 밀매업자, 수색대와 설악산의 신까지. 비로는 여러 위협에도 사랑하는 호랑할배를 지키려 한다. 사람과 자연, 가족의 유대와 분단의 슬픔이 녹아든 한국형 판타지 동화. <문학과지성사·1만4000원>

▲찍었더니 시가 되네! 폰카 동시(이요신 지음)='반짝이는 은빛/모고모아/깜깜한 골목길에/깔아주고 싶다', "꽃은/얼굴을 크게 찍어도/싫지 않나봐/방긋방긋 웃는

# 상대를 매료시키는 소통의 기술

## 설명 기술

이누쓰카 마사지 지음, 홍성민 옮김, 주노 그림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오해가 있거나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동호회, 다양한 단체 등에서 흔히 일어난다.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일까? 호감, 비호감을 떠나 말하는 이의 이야기에 온전히 빠져들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교육컨텐츠 프로듀서이자 시코이쿠의 대표이사인 이누쓰카 마사지는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단과 단절'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분단과 단절은 효과적인 설명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이누쓰카 마사지 대표가 펴낸 '설명 기술'은 상대를 매료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저자는 1000면의 사례를 분석해 설명 프레임워크를 개편해 제시한다. '설명 만능 사전', '일 잘하는 사람은 알기 쉽게 말한다' 등을 발간했으며 수많은 시간 강의를 토대로 설명 기술을 익혔다.

설명 기술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이유 등을 상대가 잘 알 수 있도록 말함'을 뜻한다. 좀더 확장해 말한다면 '인류 지식을 전하기 위한 최고의 기술'이다.

저자는 효과적인 설명은 상대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언급한다. 흔히 '상대에 대한 프로파일링'이라 명명되는데, 정보를 미리 수집해 분석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명하려는 부분에 대해 상대가 얼마나 정보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현재 위치', 상대가 어떻게 바뀌기를 바라는지 정하는 '도달점',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기준이 되는 '가치관'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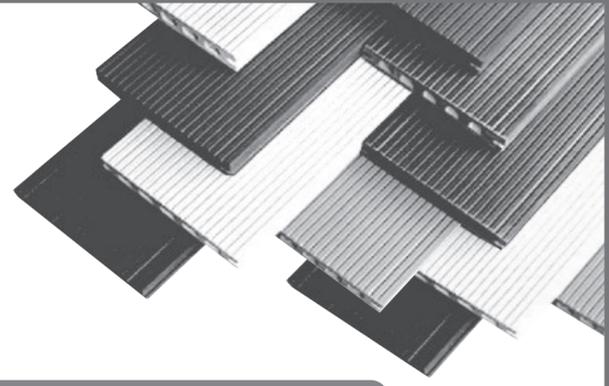
책에는 구체적인 프레임 11가지가 자세히 기술돼 있다. '이점 호소', '대비', '인과', '컷 다운', '파괴', '뉴스', '희소성', '복선 회수', '결정 유도', '자기주장', '결여 어필'이 그것이다. 이틀 프레임은 실제 활용 시 3가지 장점이 있다.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구조화할 수 있고 설명의 성공률도 높아진다. 또한 자신만의 프레임을 짜내기가 용이하다.

저자는 설명을 듣는 대상에게 바라는 점, 들은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내용을 숙지하고 적용할 줄 안다면 설명자의 역할은 충분히 목표 달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 문명의 발달은 결국 지혜와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전수하는데서 비롯됐다. 물론 그것의 바탕은 바로 '설명'의 힘이었다. <레몬한스푼·1만80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